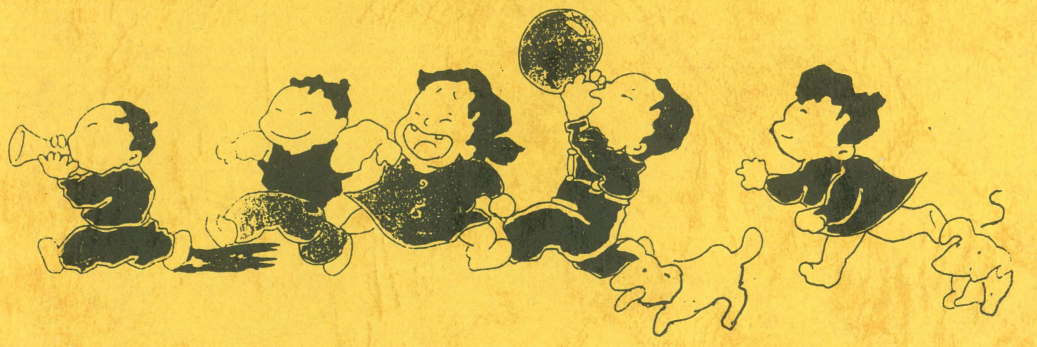
평등 세날, 역사의 주인으로 달려가는 우리들

7기 자주여성 · 민주남성

대동학교



민족경북대 12대 자주 총여학생회

찔레꽃

한국 국민은 들쥐새끼와 같아서...
한국에는 민주주의가 적합한 제도가 아니다.
- 전 주한미사령관 위컴

우리들의 흰꽃 아름다움엔
이제 가시가 돋혀 있어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함부로
꺾으려드는 냄새 나는 손들에게
우리는 이제 피흘림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못하는 짓이 없고
못하는 말이 없는
설상가상의
버릇없고 더러운 양키들에게
우리는 이제
찔레꽃 향기에 담아둔 우리들의
독한 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문부식 「꽃들」 중에서-

인사말

벌써 개나리, 벚꽃이 거의 지고 파릇파릇한 잎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완연한 봄에 복현의 새내기들은 어떤 고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고민을 함께 하는 대동학교에 오신 새내기여러분, 교사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한달 반여간 대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과연 대학인의 모습일까, 이게 그토록 고대하던 대학생활의 모습일까, 혹은 어디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와서 너무 좋다 라던가 등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대학을 흔히 자유가 넘치는 곳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통제할 방법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학인을 준사회인으로 엘리트 계급이라고들 합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큰 우대(?)를 받고 있는 대학인이 과연 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도 고민해야 합니다. 주어진 생활에 충실하고 공부 잘해서 취직 잘하고 훌륭한 엘리트가 되는 것이 대학인의 모습 다인지, 자신의 삶만을 고민하다가 다른 여러 사회에 대해 스스로가 소외시키고 외면시켰던 것은 아닌가 고민해봅시다.

누구나 개인주의 사회가 되는 것을 두려워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뿐만 아니라 대학도 경쟁의 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경쟁의 장이 되었기에 경쟁에 이기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뛰는 것이 진정 대학인의 모습인가 생각해봅시다.



96년 말부터 지금까지 온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내기들 또한 굳이 무어라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새내기라 아직은 아는 것이 별로 없기에 나의 일은 아닌것 같다고 외면하는 것이 대학인의 모습일까요?

정치란 특별히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흔히 정치를 이야기할 때 괜히 복잡하고 몰라도 살아가는 데에는 별무리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사회속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대동학교에 오신 새내기 여러분, 재학생 여러분! 지금까지 대학생들은 당대에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모순이 있다면 언제나 먼저 고민하고 해결하려 일어났습니다. 올해 또한 어느해보다 우리나라가 총체적 난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학인이 과연 지성인, 시대의 양심이라고 부를 만한지 생각해보고 자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수많은 고민들을 대동학교에서 선배교사들과 함께 풀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환영합니다.

7기 자주여성 민주남성 대동학교
교장선생님 12대 자주 총여학생회 회장 최윤진
12대 자주 총여학생회 부회장 심현지

[redacted] 단대 여학생회장님 인사

"대학이 뭐이래..."
"어떻게 사는게 올바로 사는 걸까?"
한달여 동안의 대학생활속에서 새내기 여러분들이 남긴 고민은 어떤 걸까요. 대학인으로서 진정한 대학의 모습을 일구어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몫입니다.
공동체속에서 진지하면서도 신나게 우리의 몫을 채워나갑시다.
자주여성, 민주남성 대동학교에서 만나요!!

13대 사회대 자주적 여학생회 회장 정욱경

반갑습니다. 가슴이 설레인다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여성, 남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진다고 했습니다. 그 길들여짐 속에서 우리는 주변의 깊은 모순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 있지만 대동학교 이후로는 실천하는, 느껴지는 데로 바르게 행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우리 함께 합시다.

12대 사범대 자주적 여학생회 회장 조자경

평등 새날, 역사의 주인으로 달려가는 우리들.
자주여성, 민주남성이 되어보겠다고 대동학교로 달려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겨우 한달 반 남짓 대학생활을 했지만 벌써 대학생활에 대해 다 알아버린 것같은 기분, 하지만 왠지 가슴 한구석이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
대동학교에서는 온 민족복현이 어우러지는 대동의 장이 있고 참된 대학생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친구, 선배들이 있습니다. 사흘 간의 짧은 생활이지만 가슴 벅차오르는 감동 안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싶습니다.

13대 대동인문 자주적 여학생회 회장 장윤영

[redacted]
대동학교 기조 해설

희망세날, 역사의 주인으로 달려가는 우리들

여성의 목소리가 많이 높아졌다 합니다. 아니 남자가 오히려 기죽고 산다 합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아보면 무거운 짐을 어깨에 얹은 남자, 여자라는 굴레에 허덕이는 여자들을 쉽게 보게됩니다. 7기 자주여성 민주남성 대동학교는 97년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인 임무를 자각하며 성에의한 굴레를 벗어 던지고 자기 삶에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 곱고 맑은 세날을 향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우리 자주여성 민주남성이 함께 세날을 열어 제낍시다.

대동학교 동문선배가 말하는 대동학교의 역사

1기 대동학교

"사랑 가득한 평등의 새땅으로" 1990년 3월 27일~29일

90년, 그야말로 촌남(村男)-손잡기가 부끄러워 나무가지를 쥐고 손잡은 시늉을 할 수밖에 없었던-이 만난 1기 대동학교는 막연한 안개 너머 있었던 사람-구체적으로 여성-을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부대낀 자리였다.

'아! 별다른 외계인이 아니라 똑같이 20살 청춘의 때를 살아가는 풋풋한 사람들이구나.'

아직 삶에서 실천하고 깨닫지는 못하고 있지만 언제나 대동학교는 사람을 만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리라 본다.

전전부 90 대학원 1년 전성철

2기 대동학교

"갓 피어난 내일을 위해" 1991년 4월 2일~4일

300여명의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는 장!! 그것이 나에게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분반토론을 통해 강연을 들은 내용을 선배들과 토론하면서 실로 많은것을 가슴에 담았던것 같군요. 지금 그때그렇게 어우러졌던 내동기들은 대부분이 사회에서 제 할 몫 을 다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벌써 7기 라고하니 시간이 빨리도 흘러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학우들이 대동학교를 통해 많은 것 배우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농대 식품공학과 91 이성훈

3기 대동학교

"높낮이 없는 우리들 세상" 1992년 3월 30일~4월 1일

예비대학 이후 처음으로 많은 새내기들이 참여한 장이었던것 같습니다. 올바른 삶을 고민하고며, 남녀라는 성에의한 굴레들을 조금은 깰수있는 장이었던것 같습니다. 갑자기 3기 대동하교를 회상하라니 조금은 까마득한 기분이 드는군요 하지만 자신있게 여러분앞에 대동학교를 권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대학4년을 설계하는 장으로 많으고민 그리고 대안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범대 물리교육학과 92학번 김형섭

4기 대동학교

"처음부터 다시, 그러나 새롭게" 1993년 3월 29일~4월 1일

대학이라는 낯선 곳에 설레임반 기대반으로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자유와 낭만이 가득한 곳, 진리의 상아탑. 누구나 처음에는 이런 것을 떠올리며 환상을 조금씩 가지고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 남녀공학이라는 것이 설레이게 하죠. 내가 새내기때 대동학교에 참가하면서 배운 것은 여자를 차별의 존재가 차이가 있는 함께 가야 할 동반자로써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여성이 이 땅에서 핍박받고 억압받는 존재라는 것을 배웠죠.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성의 핍박과 억압은 더욱 가중된다 라는 총여 회장님의 얘기가 생각나는 군요. 지금의 시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연세 항쟁에서 여학우가 성희롱 당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혐의로 판정받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내가 새내기때 대동학교에서는 그러한 남녀차별이 아닌 남녀차이로 여성을 바라봐야 하고 이 땅에서 여성이 억압당하는 존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97 새내기 여러분들은 이번 대동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대 93 김수광

5기 대동학교

"수입개방 막아내는 우리는 자주여성 민주남성"

94년 대동학교는 나에게 신선한 감동과 가슴 아픈 기억 두가지로 삶에 대해 그리고 그 속에서 올바른 대학인의 모습을 다시 고민해 보게 되었다. 또 가슴아픈 기억이라 함은 대동학교 동창회장으로 출마했다가 쪽수 많은(단순히 쪽수많은?) 공대에 밀려 떨어진 것, 흑흑흑 ....

어쨌든 후회없는 지금의 대학생활을 만든 계기 중의 큰 하나임은 틀림없다.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94 공성숙

6기 대동학교

"인간화 새역사의 새아침을 우리가 연다!"

과회장님의 이끔에 새내기로써 참가하게 된 작년 '대동학교'! 입학식에서부터 졸업식까지 많은 사람과 주어진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하루하루를 평가한 알차고 뜻깊은 시간들이었다. 특히 둘째날에 있은 '세상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은 직접 시민들과 접하면서 가슴으로 많은 것을 느끼게 했던 것으로, 이번 대동학교 역시 참가자 모두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사범대 교육학과 96 진성희

3.일.간.이.렇.게.진.행.됩.니.다

●첫째날(14일)

4:00~4:30 길놀이

(복현 곳곳을 돌아다니며 대동학교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아서 민주광장으 로 집결합니다)

4:30~5:00 입학식

(민주광장에서 교가배우기, 교장선생님 인사, 내빈인사, 교사결의, 새내기 선서 등을 진행합니다)

5:00~5:30 문화공연

(대강당에서 문예패가 여성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집체극을 합니다)

5:30~7:00 강연

(대강당에서 효성카톨릭대 이정옥 교수님을 모시고 여성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으로 문제의식을 고민할 수 있는 강연을 합니다)

7:00~8:30 분임토론

(조별로 강의를 듣고 난후의 소감이나 문제의식들을 함께 풀어봅시다)

●둘째날(15일)

3:00~4:00 단대시간

(단대별로 대동학교에 참가한 사람들끼리의 시간을 가집니다)

4:00~6:00 '세상속으로'

(대동학교의 하이라이트. 복현골 곳곳)

6:00~7:00 '세상속으로' 정리, 발표

(민주광장에서)

7:00~8:30 분임토론(조별로)

●셋째날(16일)

4:00~6:00 단대시간(단대별로)

6:00~6:30 졸업식(민주광장에서 대동학교를 정리하는 자리를 가집니다)

6:30~7:00 총여학생회 출범식

7:00~ 대동놀이

문화공연 해설

새내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동학교 학생이 되신 것 축하합니다.
이제 대학생이 된지 한달 반 이 지났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 따뜻하다고 마냥 잔디밭에 앉아 술만 마시는 건 아니겠죠? 대학 1학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생각, 고민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대동학교 문화공연부터 생각해 볼까요?
문화공연은요 반세기전 일본에 의해 억압받던 식민지 시대에 우리 여성들이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의 성적 노리개로 청춘을 보내고 한평생 그 고통으로 자신의 행복을 찾지 못하게 된 것과 지금 우리의 우방인양 들어와 있는 미군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기지촌 여성의 삶을 통해 일제 식민지 때나 문민정부라 이야기하는 지금이나 다를바없는 현상황에서 여성의 삶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문화공연 내용이 생소할지도 모르나 이것을 계기로 우리 사회와 그것과 맞물려 있는 여성들의 삶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새내기 여러분도 여성이기 때문에 또 남성이기 때문에 요구되어지는 사회적 인식에 의해 구속받는 일이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없는 것 같은데?'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나 우리는 이제껏 사회화되어지는 과정에서 한 인간이기보다 성에 의한 잣대로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것이지요.

주위 친구들, 선배들과 여성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해 보시구요, 희망`97의 새내기 여러분, 민족복현을 이끌어갈 여러분의 대학 1년 생활이 옆에 있는 여러 친구들과 여럿이 함께였으면 합니다.

공연내용 요약

"식민지 조국의 딸들아 일어나라"

1장 #1 기지촌 여성들을 돌보며 사는 할머니가 자신의 정신대 생활을 회상.
#2 기지촌 여성의 삶이 정신대와 마찬가지로 인간답지 못함을 얘기함.

2장 이기순씨 살해사건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정부가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보여줌.

3장 할머니의 삶에 대한 사랑으로 식민지 조국에서 억압받는 여성의 삶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 사회의 모순속에서 '여성 스스로가 주인주체로 일떠서자' 라는 내용.

주한미군과 여성에 대한 설명

분단은 우리민족의 삶 곳곳에 험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 사회 어디에나 그어져 있는 3.8선, 이 분단의 선은 과연 여성들, 특히 여대생인 우리들의 삶 어디에 그어져 있을까요?

600만이 죽고 다치고 천만가족이 헤어지게 된 분단과 전쟁, 수많은 여성들이 그 틈바구니에 끼여 군인에게 강간당하고 폭행당했습니다. 그 서러움을 안고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고 팔다리 잘린 가족들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여성들이 이산과 부상의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매춘의 거리로 나서야 했습니다. 심지어 전쟁당시 미군을 따라 평양까지 진격하기도 한 기지촌 여성들이 바로 이 분단과 전쟁으로 생겨났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분단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분단은 독재를 유지시키고 사회민주발전을 막아왔습니다. 국가보안법 같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제도가 생겨나고, 민주화운동을 하는 여성들에게는 성고문이 저질러졌습니다. 또 자그마한 민주적인 요구도 좌경시되고 억눌려졌기 때문에 여성들의 성차별 요구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85년 전두환정권이 동두천 지역에 투여한 50여억원의 대부분이 동두천 기지촌 주변의 퇴폐사업에 쓰였다는 것은 이땅에 미군을 주둔시키기 위해 우리가 치루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얼마나 크며 이 고통이 자주적이지 못한 정부 때문에 얼마나 조장되고 있는지를 느끼게 합니다.

만약 해방 이후 여성들의 활발했던 운동이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들이 부딪쳐야하는 성차별적인 사회의 모습, 침묵해야 하는 여성들의 삶은 꽤나 달라져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분단은 미국이 한국군 작전지휘, 통제권을 다 가지고 이땅 전역에 주둔하는 명분이 되었고 우리 민족이 주한미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갖가지 피해를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게 하였습니다. 주한미군의 범죄는 하루 평균 5건, 연평균 2000여건 이라는 엄청난 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게는 절도사건에서부터 크게는 살인에까지 그들의 범죄는 다양하며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들에 대해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해 처벌한 것은 전체 발생건수의 0.7%에 불과합니다. 이는 한미 행정협정이라 불리우는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특히 22조 1항은 미군의 군속이나 가족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이 미군 범죄자의 처벌을 가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군들의 범죄속에 이땅의 여성들 또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미군으로부터 강간당하고 살해 당했던 수많은 윤금이 누이와 같은 여성들이 우리들 옆에 있고 미군이 퍼뜨려 놓은 향락문화가 우리들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미군기지와 기지촌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기지란 단순한 군대와 군사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이라는 의미가 아닌 그 민족과 지역의 지배와 통제를 위한 군사력 실체로서 자국의 이해를 실현해내는 정치,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군대의 기지는 식민지 민족의 대중운동을 진압하며 혁명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한 제국주의의 반혁명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80여개의 기지가 있으며 46,000여명의 군인및 민간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지의 총면적은 약 5천만평으로 한국군 사용기지면적인 약 23억 5천만평의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군주둔비용을 연 28억달러인데 이 비용을 우리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미군이 자신들이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주둔하고 있는 것과는 또한 대조적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편성현황은 주둔군을 중심으로 주변에 번성하는 기지촌의 규모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기지촌이란 어떤 곳인가?

기지촌이라고 하면 보통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거주지와 상권을 일컫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서울 중심부에 자리한 이태원, 동두천, 그밖에 의정부, 송탄, 군산, 송정리, 부사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곳들은 일반적으로 거의 시골이었으나 군사상 중요지역으로 치부되면서 미군기지가 들어와 번성하기 시작한 도시로 그 지역 토박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기지와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집되어 있어 엄청난 상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그 상권의 형태가 미군기지에 기생하는 형태로 기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미군기지가 없어질 경우 그 곳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받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지와 기지촌은 그 기생성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퇴폐, 향락적 문화가 이 기지촌을 통해 유포된다는 점과 그에 따를 아이들 교육문제의 심각성, 지역개발의 저해, 그리고 기지주변에 가장 크게 형성된 매춘여성들의 문제, 이 속에서 파생되는 혼혈아 문제, AIDS파급문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폭력문제 등입니다.

〈이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미군에게 안보를 구걸하는 정부정책 속에 많은 민중들이 위와 같이 피해를 받는 중에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미군과 매매춘 관계를 맺는 기지촌 여성들입니다.

대부분 기지촌으로 몰려오는 여성들은 집안이 어려워 가출했다가 직업소개소에서 사창가나 기지촌으로 인신매매당한 경우, 강간의 경험으로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창가를 돌다가 기지촌으로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봉급수준이 너무 낮아 다른 일을 찾다가 이곳에 들어오는 경우, 결혼생활을 하다가 구타하는 남편에 의해 가출했다가 기지촌으로 들어오는 경우 등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들어오는 여성 대부분이 우리가 사회 구조적 모순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첨예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고 무엇보다 여성이기에 겪어야만 했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20여만명 조선처녀들이 종군위안부로 끌려가 하루에 100명까지도 일본군을 상대하면서 이땅의 굶주림과 성병으로 끝내는 몰살되어 죽어가야 했듯이 민족이 외세에 침탈을 당하면 이땅의 여성들 또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4~50만에 이르는 기지촌 여성들은 팀스피리트 훈련기간 동안 미군 훈련장소를 쫓아 포주에게 끌려 이곳 저곳을 옮겨다니며 하루에 10여명씩이나 되는 미군들을 상대해야하는 '이시대의 정신대'입니다.

세째로, 분단은 미, 일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만들어냈고, 그 피해를 국민들에게 돌렸습니다.

여성들이 당해야만하는 불안정한 고용과 차별적인 저임금, 여대생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여대생 취업차별등도 이와 맞물려 있다 할 것입니다.

경제 공동체를 이루던 남북이 길라지게 되자, 남북 모두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남한은 어떻게 위기에 대응해 갔는지 살펴봅시다.

적산불하, 원조, 차관 이것이 5~60년대 우리나라 자본공급원이었습니다.

일본이 나가자 우리 자체 기술로는 알코올 한방울 만들 수 없었던 상황에서 모든 기술은 아무리 하찮더라도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비싼 로얄티가 붙은 채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보리고개에 시달리는 한국경제 상황에서 국내 수요는 적을 수 밖에 없었고 모든 상품은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덤핑용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기업주들은 자체 기술발전에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땅투기를 알삼고 정권은 기업주로부터 정치자금을 챙기는 상황에서 형편없는 임금을 받고 하루 14시간씩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땀위에서 값싼 수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의 대기업들이 자사의 상품으로 경영하기보다 외제품목을 들여와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으로 우리들에게 팔고 있는 행태나 정치자금조달, 비자금 조성 등의 정경 유착의 썩은 모습 또한 어느날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GNP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자본, 기술, 시장 모든 면에서 예속적이고 내실없는 경제구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체 노동자의 30%이상이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어려움은 여성노동자들에게 더 심해 여성노동자의 50%이상이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강대국들이 시장개방 압력은 산업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노동자들의 대량 감원, 해고를 불러오고, 이것은 또 저임금을 끌고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서열 제 1위는 여성노동자입니다. 앞서 말한 매매춘 여성들 역시 그 직접적인 피해자들입니다. 해마다 취업의 문은 좁아지는데 대졸여성들에게는 바늘구멍 만하게 된지 이미 오래전입니다.

네째로, 분단은 퇴폐향락문화가 마구 들어오게 되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퇴폐향락문화라면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합니다.

분단이후 '미국은 좋은 나라'라는 의식이 사회 곳곳에 퍼지면서 미국의 퇴폐향락문화도 우리 생활 속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기지와 기지촌의 향락적인 문화, 삭제없이 미국인의 방식 그대로 방영하는 AFKN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89년 확인된 바에 의하면 서울 용산미군 기지 맞은 편 '성조기(미8군 신문)' 보급창구에서 7년 동안 수억원 어치의 음란기구, 음화, 포르노 비디오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시중에 나도는 음란 컴퓨터 프로그램,

음란 서적, 푸르노 비디오 대부분이 주한미군 기지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미군은 우리나라에 직접 미국문화를 전파하는 기지 역할을 한 것입니다.
퇴폐향락문화가 여성의 성을 상품으로 만들어 내면서 우리 사회에는 매매춘과 성폭행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3위의 성폭력 왕국, 그 증가율은 거의 세계 1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대생의 90% 이상이 성희롱, 성폭력을 경험하고 학교안에서도 강간이 일어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120만에 이르는 매매춘 여성들은 우리사회의 예속적 정치, 경제구조, 문화실태가 만들어낸 피해자들입니다. 가난해서, 강간당해서, 인신매매당해서, 이것이 매매춘을 하게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향락비를 벌기위해 매매춘을 하는 여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또한 돈이 만능인 시대, 이 사회의 모순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말해 여성들이 살아가기 힘든 사회에서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이 매매춘을 하게 되는 조건을 만들어준 세상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고 기지촌 여성이 생겨나는 세상도 바로 이 세상입니다. 단순히 그런 여성들이 주위에 잘 보이지 않고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같은 땅에서 한 하늘아래 이러한 여성이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위 사람들을 다시 넓게 돌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여대생들 또한 앞으로의 삶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 세상이 만들어낸 여성들의 삶은 결코 우리 여대생을 비켜가거나 먼 나라의 얘기만은 아닌 것입니다.



여학생회란
탁아문제 알아보기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올바른 성교육이란
정신대 문제 알아보기
김영삼정권의 4년간의 실정
한총련이란
학생자치권에 대해
조국통일을 위하여
4·9통일열사

세상속으로

여학생회란?

신세대, X세대, 야타족, 부킹

유행한지 한참이나 지난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반영시켜 주는 말들입니다.

요즈음은 고등학교 시절 미팅 한번 안해 본 친구들이 별로 없고 심지어는 남자 친구하나 없으면 능력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기 일수 입니다. 또한 길을 가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헌팅'이라는 이름으로 만나자고도 할 만큼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학우들은 예전에 비해 많이 개방되어 있고 남녀가 달리 취급되어지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남녀 불평등이라는 말은 썩 내키지도 않고 적어도 지금의 사회는 많이 변해서 여성상위시대라고도 간간히 얘기하기에 절박성은 없습니다. 넘의 얘기 같기도 하고 외계 얘기같아 한쪽 귀로 들었다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문제, 여성억압이라는 얘기를 하면 구닥다리 옛날얘기다, 혹은 지금의 관심사와는 동떨어진다,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구분지으면서 여성으로써의 역할을, 남성으로써의 역할을 강요하는 봉건적인 잠재의식들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학교 도서관에는 취업재수생들이 좌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말이 아니라 너나할 것 없이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기 보다 더 어려운 취업이기도 하겠고 또한 지방대라는 이유도 있겠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절반이상을 상황하는 수가 바로 여학우들의 수입니다.

그들은 취업전선에서 어떤 남학우들 보다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에서 여학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문전박대 당하고 깨지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는 오갈데 없는 우리여학우들은 입술을 깨물고 다시 도

서관으로 물밀 듯이 밀려 옵니다.

'나만은 할 수 있어. 다를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할 수 있어 ! 선택되어진 몇 안 되는 여학우들 중에 충분히 내가 설 자리가 있을 거야 . 안된다면 다른 사람을 제치고서라도 내가 서야돼 ! '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옵니다 .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경쟁논리에 스스로를 얽어매게 되는 겁니다.
또한 나름 대로 엘리트라는 특권의식은 쉽게 좌절하기 보다는 수퍼우먼이 되어 자신의 피나는 노력으로 제반 사회 차별의 벽을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 봐도 않되겠더라는 패배적인 생각으로 치달았을 때에는 '남자만 잘 만나면 되지' 라고 결론 짓는 상황까지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성 스스로가 '결혼 제일 주의' 를 외치고 남자에게 종속된 수동적인 여성으로서의 모습, 또한 연애에 대한 관념성이나 환상의 요소가 대학생활 전반의 사고 체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 속에서 공동체로의 지향보다는 개인적이고 자유적인 지향을 조장해 나가며, 자신의 개성과 처지 능력에 맞는 자기개발보다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그래서 온순하고 순결한 여대생의 존재가 될 것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강요합니다.

자 ,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표면에 보이는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본질을 바로 봅시다
결론이야 어찌되었든 우리 여학우들은 기를 쓰고 훌륭한 사회진출을 꿈꾸며 자신의 운명개척에 적극적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자주저 본성에 의한 것입니다.
단 한가지 우회한 것이 있다면 사회제반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있어 돌파구를 단지 개인의 노력으로 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
사회적인 문제는 사회내에서 풀어야 합니다.
개인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여학생회가 있는 것입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자신이 젖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여성에 대한 억압적 요소는 가장 깊숙이 은폐되어 있어 여학우 자신도 그러한 본질적인 모순을 찾기란 무척 힘이 듭니다.

때로는 이런 요소들이 여성에 대한 찬사와 모성애와 사랑이라는 환상의 이데올로기로 가리워져 억압의 본질을 현상이 덮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학생회라고 하면 '남학생들은 오면 안 되는 곳이냐?'고 하는 사람들이 꼭 열에 다섯, 여섯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학우들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강요반는 동안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은 더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남성문제는 기득권자로서 가지는 책임감이기 때문에 약자로서의 여성문제에서 파생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회의 주체는 분명히 여학우이며 이것은 또한 분명히 남학우들과 공히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할 과제인 것입니다.

경북대 총여학생회는 이제 12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11년의 역사에서 남겨야 할 것과 고쳐야 할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1984-5년부터 여러 학교에서 총여학생회가 건설되었는데 우리 경북대는 86년 1대를 시작으로 해서 처음에는 음악 감상실 운영 등 소극적인 활동을 벌이다가, 88년 매춘 올림픽 반대(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AIDS추방운동과 함께), 89년 평양 축전 참가 투쟁, 취업차별 철폐투쟁을 벌이면서 여학생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90년 부터 '탁아 자원 활동', '제 1기 자주 여성, 민주남성 대동하교', '자치교실', '대동 한마당'등을 통해 소수만의 여학생회가 아니라 다수의 여학생회로 발전되는 계기를 맞이하고, 92년 보은이 진관이 무죄석방 투쟁(성폭력 특별법 제정 투쟁과 함께), 93년 윤금이 투쟁 등으로 더욱이 튼튼해 졌습니다. 그리고 94, 95년을 거쳐 96년에는 정신대 문제 완전해결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내었고 올해 97년 12대 총여학생회를 건설하였습니다.

여학생회 11년의 역사를 보면 학우들과 함께 인식하고 실천의 방법을 찾아 보는 것과 본질적으로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타파하는 투쟁을 통해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우 대중과 함께 하지 않거나 현상적인 요구(취업 세미나 개최, 여학우 복지에 관한 것 등)만 받아들이는 것은 진정하게 여학우 중심의 여학생회가 아닌 것입니.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투쟁하는 속에서 여학생회는 발전하고 진정으로 여성, 남성이 함께 웃으며 어우러지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세상속으로

탁아문제 알아보기

여성에게 일할 권리를!
아이들에게 보호,교육 받을 권리를!
노동자에게 생존권 향상을!
디딤과 민족복현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 「빈민탁아」에서 「비영리 민간 어린이집」까지 10년

정태춘씨의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노랫말처럼 80년대 달동네, 철거지역 도시빈민의 소외된 삶속에서 '빈민탁아'의 이름으로 출발한 우리나라의 탁아운동은 10년의 역사속에서 90년대 '비영리 민간 어린이집'으로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아나가고 있다.

80년대 경제발전이라는 국가 최고의 목표 아래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거대한 도시빈민의 형성과 정부, 기업의 방관 속에서 공단, 철거직역을 중심으로 탁아에 대한 요구들이 자생적으로 모아졌으며, 일나간 엄마를 대신하여 그 지역 아이들을 돌봐주는 형태로 '빈민탁아'는 출발하였다.

이후 방치된 아이들의 계속적인 사고, 죽음을 계기로 이전까지는 한 가정의 문제로만 치부되던 맞벌이 가정의 탁아문제가 국가, 기업이 함께 책임져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탁아운동의 양적, 질적인 변화들을 가져오게 된다. 92년 영유아 보육법의 제정에서 이후 보육정책의 끊임없는 재개정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빈민탁아'가 시대와 보육정세, 의식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활동 전망의 모색 속에서 지금의 '비영리 민간 어린이집'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도시 환경 미화사업과 재개발를 위한 강제철거로 인해 활동 근거지의 해체, 도시 빈민층의 광범위한 저소득층으로서의 확대와 변화, 정부의 왜곡된 인식에서 출발하는 보육정책과 이로 인한 영리사업으로 치닫는 지금의 보육현실, 당장 아이들을 맡길 곳이 필요하던 요구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교육까지 점차 다양해진 부모들의 보육에 대한 요구 등의 주체적인 변화 속에서, 원칙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었다.

이속에서, 광범위한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을 위한 그리고 건강함과 올바른 아동 보육 실현을 위한 비영리 민간 어린이집이 만들어 진 것이다.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저렴한 보육료, 아동 중심의 교육 철학과 구체적인 교육의 실현, 올바른 보육정책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활동, 교사, 후원회원,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고 책임진다는 것이 바로 지금 비영리 민간 어린이집의 성격이라 할 수 있겠다.

2. 정부의 보육정책 10년

10년의 활동과 노력, 국민적 요구,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육정책은 자녀 양육의 문제와 책임을 전적으로 각 가정의 문제로 축소시키면서 그 책임을 철저히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탁연의 활동과 엄마, 아빠가 일나간 사이 문이 잠겨진 방안에서 불에 타 죽은 혜영, 용철남매사건을 계기로 탁아가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정부는 뒤늦게 영유아보육법과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성의 인권, 여성의 노동가치, 사회적 재생산을 담당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자녀양육에 매 권리등에 대한 올바른 관점, 인식의 부재속에서 정부는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 식의 보육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보육정책의 핵심은 여성과 가정 그리고 사회와의 개별화에서 출발한다. 즉, 여성의 노동, 사회참여활동과 이로인해 발생하는 가정문제(자녀양육, 가사노동, 노인문제 등) 그리고 여성이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적극적 활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와의 완전한 차별화 속에서 자녀양육의 전적인 부담과 책임을 여성개인과 가정으로 돌리고 있다. 이러한 원칙속에서 정부는, 가정의 급증하는 보육요구에는 보육사업의 영리화, 민간보육시장의 개방으로 보육시설의 양적인 확대만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민간보육시설의 난립속에서 운영과 보육질의 저하 등 어려움에 처해있는 보육사업의 일주체인 민간보육시설의 정부지원 및 정책선의 요구에는 보육료의 자율화와 보육시설간의 경쟁, 강력한 구제 등으로 더욱 영리성으로 치닫게 내몰고 있다. 결국 지금의 정부정책 속에서 여성은 자녀양육의 전적인 부담을, 가정은 높은 보육료의 부담을, 아이들은 질낮은 보육을, 민간보육시설은 영리성의 강화를 각각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3. 탁아와 함께 한 복현골의 10년

90년 방치된 아이들의 죽음이 복현골에도 알려지면서 총여학생회에서 시작한 탁아사업이 이제 10년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이라는 이름하에 20여명의 자원활동가들이 탁아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아이들을 돌보던 활동들이 92년부터 각 단대 소모임, 특히 인문대는 과소모임으로 만들어지면서 나름의 활동들을(현장보조, 후원사업)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2~3년간의 활동들을 평가, 반성하면서 좀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94년부터 '디딤 어린이집'으로 활동을 집중, 정리해 내면서 디딤의 탁아활동과 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복현의 탁아활동을 준비에서 총화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교육에서 행사사업까지 구체적으로 역할을 만들어가고 있는 자원활동가와 소모임들, 재정후원까지 함께 책임지고자 노력하는 복현의 학우들이 복현의 탁아10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비영리 민간 어린이집 '디딤'은 92년부터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을 위해 비산동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94년 재정과 내용에 대한 준비를 통해 95년 3월 다시 문을 열었다.

현재 디딤은 1)다른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의 반액수준의 저렴한 보육료를 통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분담 2)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의 인성, 사회성 중심의 교육활동을 통한 아이들의 권리실현 3)24시간, 야간, 휴일, 영아보육 등의 운영을 통한 각 가정의 다양한 보육요구의 실현이라는 목표 속에서 활동 중이다.

이러한 목표 속에서 「결손가정에서 맞벌이 서민가정까지 10개월 영아에서 국민학교 2학년 아동까지, 24시간 보육에서 밤11시에 집에 가는 야간 보육까지, 다양한 처지와 조건 속에서 디딤을 이용한 가정」, 「정기적 재정후원을 하는 학생, 전세금의 절반을 기꺼이 후원하신 한의사 선생님, 아이들 비상약품을 후원하시는 분, 바로 후원회원들」, 「일주일에 한 번 현장에서 교사들을 보조하여 기저귀가는 일에서 청소, 교육활동까지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들!」, 「이들과 함께 디딤 현장을 24시간 지켜나가는 교사들!」

나보다는 우리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엄마에게 일할 권리를!

아이들에게 보호, 교육 받을 권리를!

노동자에게 생존권향상을!

이라는 목표실현을 위해 디딤공동체를 통해 희망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디딤과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민족복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세상속으로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강간은 '젊은 여자들에게만' 일어난다
대부분의 강간은 '컴컴한 골목'에서 '낯선 사람'에 의해 '우연히' 일어난다
강간은 폭력이 아니라 조금 난폭한 '성관계'이다
여자들은 '은근히' 강간당하기를 바란다
강간범은 '정신이상자'이다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과 행동'이 강간을 유발한다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여성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 말고 강간을 방지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

위의 말들은 성폭력의 잘못된 통념들입니다. 우리는 가끔 성폭력이라는 말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이 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력은 강간 뿐 아니라 추행, 성적희롱,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윤간, 부부강간 등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의 발생실태

1989년 법무부 〈범죄백서〉 : 우리나라의 강간 신고율 2.2%

이 신고율이 실제 강간 발생건수를 추정하면 한해 동안 32만건, 하루에 877건, 1시간에 37거느 3분에 2건의 강간사건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강간범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채 오히려 강간 발생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우리나라 강간범죄 발생 비중은 인구 10만명당 발생수가 세계 3위에 이릅니다. (1992. 4. 발표)

추행이나 성적희롱 등 다른 성폭력도 많은 여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1989년 형사정책연구원이 2,290명의 성인대상 조상에 의하면 '가벼운 추행경험'(76.4%), '심한 추행'(23.7%), '성적희롱'(48.6%), '성기노출'(74.5%), '강간미수'(14.1%), '어린이 성추행'(6.5%)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 유형별 성폭력 통계〉 대구. 1996(1-12월). 총 274건

	근친	남편	애인·친구	직장상사·동료	학교 선·후배	이웃 및 아는 사람	교사	모르는 사람	기타
1996년	30건	5건	27건	65건	7건	65건	5건	77건	17건
1997년	17건	·	5건	9건	·	14건	6건	14건	·

〈처리과정〉

	법적조치 의뢰	의료조치 의뢰	심리상담
1996년	82건	27건	189건
1997년	26건	6건	33건

대도시의 상담기관에 성폭력 상담을 요청한 사람을 조사한 결과 통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경험이 많다
2)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가정적 환경과는 무관하다.
3) 가해자는 15세에서 60세에 이르기까지의 남성 : 모든 연령층의 남성이 성폭력의 가해자
4) 가해자는 모든 교육,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발견되었다.
5) 심각한 성폭력(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윤간, 성적가혹행위)의 67.1%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 의해 저질러졌다.
6) 아동의 성폭력 가해자는 근친이 높은 비율을 차지
7) 성폭력의 지속성 경향도 따로 있음
:1회로 종식(66.9%), 동일인으로부터 반복적 피해자도 많음.
8) 장소 : 집 등 사적 공간이나 버스,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가 가장 많으나 모든 장소에서 발생함.
9) 발생시간 : 특정 시간대가 아닌 모든 시간대에 걸쳐 나타남.
10) 당시 상화 : 데이트 중, 직장출근 시작후 곧, 출퇴근 무렵, 조문 후 등 모든 상황에서.
11) 피해자가 인지한 피해원인 : 자신의 잘못, 가해남성의 잘못, 사회문화적으로 왜곡된 구조.
12) 파급영향 : 서구의 여성보다 더 영향이 크다. 정서적 영향, 신체적 영향, 사회적 기능에 영향. 특히 강간, 윤간, 성적가혹행위 등의 피해자는 모든 종류의 영향을 호소.

유형별로 본 성폭력 사례

1. 어린이 성폭행 : 형사미성년자인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해 애무하거나 성기의 자극, 성교 그리고 항문이나 구강성교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 모두를 포함. 피해연령은 6세-13세가 많고,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75%정도를 차지하며 이중 친인척을 포함한 근친이 40%가량 된다. 가해자는 어린이를 잘 아는 사람들로, 국민학생에서부터 70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 이중 단지 20-30% 정도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2. 근친 성폭행 : 가족 혹은 친인척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행으로서,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가족구성원간의 강제적인 성관계나 추행을 말한다. 근친간의 성폭행은 가해자와의 공동주거나 빈번한 대면으로 인해 피해자가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근친 성폭행은 친부나 의부, 그리고 형제자매, 삼촌, 사촌, 이모부, 고모부 그리고 시부모나 할아버지에 의해 발생.

3. 데이트 성폭력 : "14세 이상의 남녀쌍방이 이성간의 데이트를 하는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나 조종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행"으로 "외형적으로 성적 친밀감이 있을 수 있는 사이에서 남성이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해 여성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정의

4. 직장내 성폭행 : 직장내 성폭행은 성적 농담에서부터 성추행,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 직장내 성폭행은 직장생활 중이나 채용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폭행으로 주로 지위 차이에 의한 성폭행과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인식한 데서 오는 성폭행으로 나눌 수 있다.

5. 부부강간 : 부부강간은 아내구타의 가정폭력 문제와 함께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부부강간이 일어나는 원인은 남성인 가장이 여성과 어린이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련의 사회체계인 가부장제에서 남성은 가정에서 여성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아내구타 및 강간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며 성차별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여성의 지위 때문이다.

성폭력 피해여성이 겪는 문제들은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 법적 문제 등 매우 다양하며 성폭력 상담의 처리과정에서 꼭 지켜야 할 것은 증거보존, 병원진찰,

혼자 고민하지 말기, 법을 통한 해결 등이다.

대안을 찾아보자

성폭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고 올바른 인식과 함께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강요하는 성의 사회화도 양성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올바른 성인식 및 성행동을 돕는 체계적이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통제차원에서는 올바른 '성폭력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전문상담기관, 종합위기센타 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팽배한 폭력문화를 비판, 쇄신하고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대상화하는 향락적인 산업의 규제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녀가 평등한 성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속으로

올바른 성교육이란

**성은 인간의 생물학적 성별과 신체구조, 성 행위와 생식능력을
포함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자아와 성 역할, 성의 규범과 문화 등을 총괄하는 복합적인 개념**

우리나라 성교육의 현실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은 아주 단편적인 것인데 주로 여성에게는 '남자는 늑대고 도둑이다'라는 말이 성교육의 실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즉 성적 욕구는 남성의 본능이며 남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 주로 여성에게의 일방적인 책임전가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예. 여자신세 망친다 등). 그와는 다르게 남자가 성을 인식하는 과정은 의도적인 것보다는 일생생활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른 몰래 비밀리에 음성적으로 알아가는 등 성적 미성숙단계에서 강한 호기심, 탐닉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주로 생물학적인 성지식과 순결교육, 성역할 분업이 행해지고 있는데 현대에 와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교육의 문제점은 남녀 분리 지도가 행해지고 있고 특정내용(여성의 자위행위 혹은 성충동, 성관계 등)은 언급하지 않아 학생들의 성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성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의 성은 생물학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남녀의 성행동의 차이나 성차별적 관념 또한 그러한 결과임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 동일한 교육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인간교육인 것입니다.
성기모양, 기능, 성행위 뿐만이 아니라 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자신의 성행동의 조절능력, 성적인 존재로 인식 및 긍정적인 태도 등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사회의 성문화는 어떠합니까.

1. 우리사회의 성문화(혼재)

가부장적인 성문화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생겨난 성문화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이 큰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가부장적인 성문화는 사적인 영역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생식적인 기능이나 여성의 성은 자손의 재생산에만 가치를 두고 봅니다. 그리고 남성의 성은 활력을, 순결은 여성에게 재산이자 생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축첩제도, 정절문화 등이 그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성 개방의 문화는 자본주의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성에 대해 보다 진보적이고 개방적이며 낭만적인 사랑이라든지 혼전성관계, 여성에게 비교적 허용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나 자본주의화 과정을 통해 성은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하게 되며 음란퇴폐, 성범죄의 증가들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2. 성규범

1)남녀의 성 고정관념

남녀의 성 고정관념적 내용을 보면, 남성은 주로 독립적, 공격적, 능동적, 적극적, 합리적, 계획적이며 여성은 의존적이며, 수동적이고, 정서표현적, 감정적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듯 우리사회는 남성적인 특징이 여성적인 특징보다 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어 지고 있습니다. 남녀에게 어떤 기대와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하면 결국엔 그 기대가 실제행동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한 남녀의 특징은 사회문화 시대에 따라 다르게 기대되고 규정됩니다.

〈남녀 성차의 실제와 허구〉

-성욕의 차이 : 남성의 성욕은 공격적이고, 억제 불가능하며 여성의 성행위는 남성의 성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성반응시 남성은 시각에 의해서 일어나며 외부표현적이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그 반응을 알아내기가 힘들다. 실제 성반응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밝혀졌다.

-공격성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 이는 다른 특징에 비해 비교적 일찍부터 나타난다. 여아의 경우 공격행동에 더 죄의식과 부모의 꾸중을 듣고 불안을 갖는다.

-시·공간, 수학능력은 남성이 우월하다. 이는 사춘기 이후에 뚜렷이 나타난다.

-언어능력은 여성이 비교적 일찍부터 우월하다.

-성공에 대한 기대

남녀의 성역할과 성차는 고정관념에서 오는 미신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성차는 훨씬 크고 그 차이는 사춘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 또한 교육을 통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2)성규범 이중윤리란?

공식적인 체계(이상적, 표면적인 규범)-결혼한 부부간의 관계, 일부일처제, 성교육은 최소한 의 사회문제 미연의 방지목적

비공식적인 체계(어연히 실재하는 현상)-혼전성관계, 혼외매춘, 성폭력

→공식적인 체계와 비공식적 체계는 긴밀한 관계-혼외출생자도 일정절차를밟으면 입적, 간통도 법적으로 처벌

3)성기중심설

우리는 흔히 성을 성기관을 중심으로 한 행위만을 국한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성=성관계=성교=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속으로 삽입)

그리고 강간만이 성폭력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며 성폭력특별법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

이중적인 성규범, 성윤리에서 벗어나 남녀에게 동등한 성규범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남녀는 동일한 인격체이며 똑같은 성욕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을 성기중심적이고 성교중심적인 생물학적인 성으로만의 인식을 벗어야 하며 성을 둘러싼 각종 속설과 편견, 왜곡된 통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의 삶, 자기신체에 대한 성적 자율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성욕구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을 하고 성의 다목적성을 인지하고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속으로

정신대문제 알아보기

정신대에서 양공주, 식민의 역사에서
여성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86년 전에 불법적일고도 강제적으로 한반도를 합방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우리의 이름과 말을 빼앗고 한반도 전역에 있는 모든 것을 전쟁의 소모품으로 수탈, 이용하였습니다. 강제 징용, 군속, 군대 위안부, 원폭 희생자, 사할린 동포 등의 약 750만명 이상(일본군 대장성 보고)이 당한 인적, 물적, 재산상의 피해는 인류 최대의 비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은폐되어도 안되며 더군다나 정당회되거나 찬미되어도 안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가장 처절한 피해 현실에 대해서 조차 일본의 사죄와 법적 책임, 배상을 받지 못한 한일 관계는 평등한 한일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은 피해당한 여성들의 인권회복과 우리 민족의 자존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왜곡된 한일 관계를 아시아의 평화와 연대를 위한 기초를 놓는 일일 것입니다.

86년전 이 땅의 여성들은.....

'위안부'들은 대부분이 하루에 30~40명의 군인을 상대했고 많게는 100명까지도 상대했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ㅇ아침 9시 부터 셀 수 없이 길게 줄을 서 기다리는 군인들이 많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패전후에는 이 여성들은 전쟁터에 그대로 버려지거나 자살을 강요당하기도 했고, 심할 경우에는 사살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위안부'들의 귀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길이 없으나, 상당히 낮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당수가 위안소에서 또는 이동 중에 죽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위안부'를 강요당한 여성들은 위안소에서 얻은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으로 귀향후 반세기 동안을 고통받아 왔습니다. 대부분이 방광염, 자궁 내막염, 난관이

상, 하혈 등으로 고통받아 왔으며 최근에 실시한 서울 중앙 병원의 무료 진료 결과에 의하면 진료를 받은 19명의 할머니들 중 10명이 매독균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울증, 불면증, 신경증, 사람기피증 등 이들이 당하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 76세인 정서운 할머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연행되어 갔는데, 평일에는 50명 정도, 토일요일에는 100명이상 길게 줄을 선 일본군을 아침 9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기절하거나 성기가 붓고 터져서 도저히 일본군인들을 상대할 수 없게 되면 일본군은 4~5대의 마약 주사를 수없이 놓았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현재 정 할머니의 양 팔은 딱딱하게 굳어서 피가 잘 통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68세인 문필기 할머니는 아직도 매일 밤 꿈속에서 달려드는 일본 군인들과 싸우는 꿈을 꾸면서 소리를 지른다. 그래서 동료들이 아무도 한밤에서 함께 잠자기를 꺼릴 만큼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에게 있어서 전쟁의 고통은 50년전에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그들의 삶속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할머니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고 민족적인 자존을 되찾기 위한 정대협(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운동은 1990년 11월부터 시작되어 만 7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제도의 범죄인정과 자료공개, 국회결의 사죄, 국가 배상, 바른 역사교육 실시, 위령비 건립 그리고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일본 대사과 앞에서의 수요시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신고한 생존 할머니의 수는 161명인데, 지난 4년 동안 강덕경 할머니를 비롯한 18명의 할머니들이 참된 해방의 기쁨도 맛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러나 이순간까지도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기본입장은

첫째,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국제법적 범죄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진상조사도 93년 8월의 2차 조사 보고서를 발표할 때 애매모호한 강제성을 인정한 이후 더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범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그대로 비공개 문서로 소장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으로써 범죄 집행의 주최와 동원 총규모, 패전시 귀환 상황 등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세째, 일본 정부 주최로 사죄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통석의 염'이라든가 '마음으로부터 사과드린다'든가 하는 용어는 한일 간에외교적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총리나 외무장관 등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사죄'는 아니었습니다.

네째, 물질적 배상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65년 한일 협정 및 피해 당국과의 조약 등에 의해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비난과 국제사회가 일본군 '위안부'범죄는 해당 조약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정부는 피해자에게 국제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는 권고를 완전히 면하기가 어려우니까 궁여지책으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하 국민기금)을 설립하고, 이것을 피해자들에게 작년 8월 15일 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대만의 피해자들이(참고: 많은 아시아 여성 위안부 중에서 80%가 우리나라 여성입니다) 모두 국민기금 거부 태도를 확실히 밝히고 해당 정부도 국민기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자 난처해진 일본 국민기금 측은 우선 한국의 피해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피해자들과 평소 친분이 있었던 민간인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민간인들은 한국의 언론사와 인터뷰를 자청해서 국민기금에 대한 선전을 하는가 하면 피해자들을 개인개인 방문해서 할머니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약점삼아 온갖 거짓말로 기금을 받을 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입장과 보수주의자들의 상황으로 봐서 일본 정부로 하여금 범죄를 인정하게 하고, 법적 책임하에서 배상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선 이 국민기금을 받고 또 일본 정부의 보상도 받으십시오." 이 논리야말로 할머니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운동을 분열시키며, 현재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정당화시켜주는 논리입니다. 우리 피해자와 피해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일본의 정세,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한 "여성들이 상행위를 위해 스스로 위안부가 되었고, 정부와 군은 단지 교통편의를 제공했다"는 등의 망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죄값이 아닌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누구 할머니는 기금을 받기도 했다는 등의 헛소문을 일본에 전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한국정부와 정대협, 다른 할머니들에게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들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활동을 계속하여 결국 얼마전 7분의 할머

니가 국민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국민기금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민족의 이름으로 국민기금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할머니들도 이 기금이 일본 정부가 죄를 저질렀으니 죄값으로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매춘에 대한 값을 준다는 듯이 받아 들여 진다면 이것은 우리의 명예와 존엄성을 다시 한번 짓밟는 일을 중단하라고 일본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76세인 정서운 할머니는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단순히 돈만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아픈과거,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리고 꿈마다 나타나는 그 악몽같은 과거를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범죄에 대한 정당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저는 배상을 받으면 받는 즉시 돈을 찢어버린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정당한, 합법적인 배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제 명예도, 제 동료들의 명예도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이 국민기금은 일본 국가와 군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한 일본군 '위안부'제도를 비인도적인 전쟁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정부가 피해자에게 사죄, 배상해야 되는 이유는 일본군과 정부가 인도에 반한 죄를 범했고, ILO 29호 조약인 강제 노동금지 조약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상의 주체는 일본 정부이고 배상의 이유는 범죄 행위에 대한 배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기금 방식은 이 어떤 조건에도 기반해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함든 할머니들의 처지를 이용하여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묵표만을 충족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세째, 이 방식은 지금까지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된 국제적 논의와 권고를 모두 무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비인도적인 전쟁범죄로 공인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국제 관계대로 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보고서들이 UN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또 95년 북경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와 ILO전문가 위원회 등은 일본 정부에게 범죄인정과 법적책임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4월에 열린 52차 유엔 인권 위원회는 국가배상을 권고하고 있는 유엔 인권위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인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씨의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견지해오고 있는 '65년 한일 협정으로 배상관계문제는 모두 끝났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국제적 입장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ICJ(국제 법률가 협회)보고서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씨의 보고서에는 65년 한일협정에는

불법 인권침해와 위안부 개인의 권리 침해에 관한 법적 배상 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째, 이 국민기금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일본 국민에게 떠넘김으로써 국제적으로 제기된 비인도적인 전쟁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볍게 매듭짓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전쟁책임과 비인도적 범죄행위로 인한 국가의 책임을 국민개인의 책임으로 환원시켜버린 국가는 없습니다. 국민은 역사인식을 새롭게 하고 세금을 내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에 동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민은 법적 책임의 주체가 결코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기금이 가진 음모가 이러한데도 우리 할머니들이 어쩔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역사에 다시 한번 65년 한일 협정과 같은 오류를 남기게 될 것이며, 우리 할머니들의 명예와 민족의 자존심은 또 한번 역사속에 그대로 묻히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일본 정부는 범죄 인정도 하지 않고,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이제 국제적으로 면죄부를 얻게되고, 자신있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 활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에도 상당히 위협적인 군국주의 일본으로 부상될 것입니다.

할머니 7분이 받아들인 국민기금
-우리모두의 잘못입니다.

할머니 7분이 결국 일본의 회유에 의해 국민기금을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학교 명예학생이신 이용수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할머니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은 매월 20만원, 우리 대학생들의 용돈과 비슷하거나 훨씬 작다 할 것입니다. 그돈으로 식비와 주거비를 포함한 생활비, 용돈을 꾸려 가시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생활적 어려움에다가 무엇보다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가 보여준 미완적인 태도로 더이상 정부를 믿고 살 수 없다는 생각, 위에서 본 일본의 헛소문과 회유적인 말에 결국 돈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할머니들은 '양심적인 일본인이 우리 국민들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잘해주고 관심도 많다'고 말씀하시며 국민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할머니들은 힘들게 참아내고 정당한 사죄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 할머니들의 힘을 빠지게 만드는 손자 손녀는 더이상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할머니들을 돕고 힘을 드리며 우리나라 정부에

게 일본에 대해 확실한 태도를 촉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권이 외세에 빼앗겼을 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우리 어머니들을 침략자의 성노예로 빼앗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할머니들을 우리 민족의 품으로 보듬어야 할 때이며 다시금 기지촌 여성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식민지 여성으로서의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청산되지 못한 과거의 역사, 정신대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속으로

김영삼의 집권 死년, 우리 청년학생들은...

민족 경북대 법대 회장 93 김수광

작년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로 김영삼정권은 4천만 민중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으며 이어지는 한보사건은 우리나라의 총체적 부패성을 보여주는 비리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김영삼정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해방이후 50여년간 이어져여는 식민지 대리정권의 총체적 모순이 극대화에 다다른 것이며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의 모순이 극대화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국정전반에 간섭하고 5조원이나 되는 돈디 몇몇 권력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30대 독점재벌이 이땅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혈연, 지연, 인맥으로 똘똘 뭉쳐져 하나의 재벌왕국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정치권과 결탁되어 봉권왕조처럼 거대한 보수세력을 이루어 민중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을 읽노라면 조선후기의 역사를 읽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무엇이 조금씩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느냐
그것은
늙은 산맥이 찢어지는 소리
시드는 힘과 새로 피어오르는 모든 힘의
기인 싸움을 알리는 쇠나팔 소리

1997년은 우리 민족이 자주냐, 예속이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미국에 의한 정치, 경제, 문화적 식민성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그 어느때 보다 민중의 자주성이 고양되어 있고 민중의 역동성이 꿈틀거리고 이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시기 우리는 전민항쟁을 이야기 합니다.

1794년 갑오농민 전쟁부터 1905년 치욕스런 을사보호조약에 이르는 10여년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20세기 100년의 역사를 좌우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만약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벽두에 이르는 이 100년 간의 기간에 우리가

낡은 봉건왕조와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쳐 올바른 근대화의 길을 자주적으로 개척할 수 있었다면 20세기 100년의 민족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997년을 살아가는 지금의 역사는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를 눈 앞에 두고 있는 「민족사적 대전환기」의 시대인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떨어지고 바다에서는 배가 침몰하고 기차가 탈선하는가 하면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성수대교가 끊어지고 대구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이 폭발하는 등 사고정권이 김영삼 정권인 것입니다.

또한, 민족의 생명줄인 쌀은 대통령직을 걸고 수입않겠다더니 농산물을 비롯한 서비스, 교육, 공공부문 등 쌀을 포함한 모든 것은 세계화 논리 속에 다 던져버린 김영삼 정권은 사대매국정권인 것입니다.

통일을 이야기하는 학생들을 폭력경찰, 백골단, 헬기, 페퍼포그 등 온갖 물리력과 좌경용공세력이다, 김일성 친위부대다, 빨갱이다는 등 온갖 이데올로기로 탄압하며 정작 통일정책하나 마련하지 않는 반통일 반민족적 정권인 것입니다.

김영삼 집권 5년째!

청년아! 그대가 가는 길이 역사다 라는 말처럼 우리가 발딛고 있는 지금의 1997년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가에 따라 우리의 역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속으로

한총련이란?

80년대 '반독재민주화'의 시대정신을 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독재를 반대하며 7천만 겨레의 통일염원인 통일을 향해 열심히 살아왔던 선배님들의 자랑스런 조직은 전대협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80년대를 살아오면서 전대협은 한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87년 전두환 정권의 장기집권을 반대하며 '호헌철폐, 독재타도' 투쟁, 89년 임수경 대표의 평양축전 참가, 90년 5·9민자당 창당 반대, 91년 수많은 열사들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5월투쟁, 92년 민주정부수립 투쟁 등 이루말할 수 없는 전대협의 활동속에서 전대협은 하나의 분명한 원칙을 세워냈습니다. 그것은 학생회의 주인은 학우들이고 학우들을 중심에 세우고 학우들의 힘을 기반으로 할 때만이 더욱 튼튼하게 학생회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총련은 92년 이전 각 학교 대표자로 운영되던 전대협의 대표체계를 혁신하여 보다 기층 단위학생회까지 참여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고민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학생회 강화와 전대협의 강화에 있어서 필연적인 결과물이었으며 협의회체계에서 보다 강고한 전국적 총학생회 연합체계로의 확대, 발전을 지향하게 됩니다. 단대회장까지 의결의 책임자이자 주체로 세워냄으로써 보다 학우들과 밀접하게 결합된, 전국의 모든 대학의 단대회장까지 한총련 운영의 주체로 세워냄으로써 단대학생회가 과학생회의 요구를 모아내어 명실공히 백만학우의 생활·학문·투쟁을 책임져 나아갈 전국적인 총학생회연합 조직의 건설로 힘있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93년 역사적인 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출범으로 열매맺게 됩니다.

한총련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 약자입니다.

한총련 산하에는대구경북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등 8개의 지역총련과 1개의 특별지구(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와 각 부문계열조직(전여대협, 전사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총련과 한총련의 중앙과의 연결은 각급회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규약상 한총련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대의원대회입니다. 대의원대회는 각 대

학 단과대 회장님들이 대의원으로 참가하여 한총련의 제반 사업을 결정하고 한총련 의장님을 선출하는 자리입니다. 대의원대회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설적인 의사결정 기구는 각 지역총련의 의장님들이 참가하는 한총련 중앙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한총련은 또한 산하에 조국통일운동을 담당하는 조국통일위원회, 학원자주화운동을 담당하는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한총련은 바로 학우들입니다.

학우들이 없는 한총련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한총련은 전국의 100만 청년학생들을 자기 조직의 주인으로 하면서 조국과 민족의 진로를 개척하고 대학생들이 사회속에서 올바른 도덕과 진리를 지켜나가며 사회를 주도하며 학원의 자주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합니다. 백만학우와 함께.....

백만학우의 애국하는 조직 한/총/련!

한국학생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고 전대협, 그 승리의 역사를 고스란히 계승함으로써 통일조국의 동량으로서 한국사회를 힘차게 책임져 나갈 막중한 임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한총련. 4천만 국민의 든든한 청년조직으로서 이미 학생들만의 조직이 아니라 4천만 국민의 조직이 되어 버린 한총련, 백만학우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받고 언제나 그래왔듯 역사와 시대가 청년학생에게 부여하는 의무를 청년의 열정과 패기로서 개척해 나아갈 우리의 한총련.
과학생회에서부터 한총련까지 한총련에서 다시 과학생회로, 하나에서 백만으로 다시 백만이 새사회를 이끌어 나갈 하나의 시대 정신을 밝혀 나가는 과정은 바로 한총련이 백만학우의 조직이자 4천만 국의 조직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항쟁의 나날을 살아갈 새내기를 위한 한총련 상식 3가지.

●한총련의 지향을 응축시킨 모토는 무엇일까요?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이 말에는 한총련을 왜 만들었는가에 대한 선배들의 애국적 열정이 녹아 있습니다. 한총련은 민족의 생명줄인 자주권을 더러운 군화발로 짓밟히고 있는 미국을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고 가진 자들만의 부정부패 공화국이 아닌 민중이 주인되는 새 정치, 새 제도, 새 생활을 구현하며 분단조국의 설움을 통일로 이겨내기

위한 의지가 담겨 있지요.

●한총련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 대학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 정부당국에서는 마치도 한총련이 소수 몇몇 좌경폭력세력의 결집체인양 이야기하고 한총련의 배후에 간첩(?)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새내기 여러분! 한총련은 3군사관학교, 경찰대학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4년제 대학이 가입되어 있고 서울, 대구 등 몇몇의 전문대가 아직 가입되지 않았지만 전국의 210개 대학이 가압되어 활동하고 있는 대중적인 조직입니다. 학생회 활동은 여러분 대학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이라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아직은 자신과는 무관하게 느껴질지도 모르는 조직, 한총련에 여러분의 의사를 반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여러분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과(학부)학생회장님은 학생들에게 한총련 사업을 이야기 해주고 실현시키는 사람입니다. 과학생회장님들이 모여 단과대학생회를 이끌어 나가고 단대학생회장들이 모여 총학생회를 이끌어 가지요. 총학생회는 이렇게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조직이 아닌 과학생회, 단대학생회장을 통해 여러분 곁에 있는 조직이 되지요.

한총련 의장은 이름만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정연한 조직체계에 의해 여러분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고민하는 바라 여러분의 충실한 일꾼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고민을 한총련에 반영시키려면 과학생회-단대학생회-총학생회-지역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으로 이어지는 정연한 조직체계에 의해 반영할 수도 있고 한총련 의장이나 지역총련 의장을 직접 만나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이렇게 한총련은 멀게만 느껴지는 조직이 아니라 여러분의 바로 곁에서 회장님들을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조직입니다.

세상속으로

학생자치권에 대해

-학생회를 우리의 힘으로 지켜내자

인문대 회장 92 김 철

들어가며

처음 이 강연을 제안받으면서 일정정도 전문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동학교에서 왜 이런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또한 처음 이 주제에 대하여 듣게된 새내기 여러분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함을 가진 새내기들도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 번 풀어봅시다.

우리는 대학교에 들어오면서 두리를 만들어 공동체생활을 하게 됩니다. 선배, 동기들과의 만남속에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생활들을 경험하고 인간에 대한 새로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만남들이 기본이 되어 각 과마다 학생회를 만들어 공동체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예를 들어 모꼬지, 환영회, 크게는 정치투쟁 등등)시켜 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있는 학우들의 대중조직인 학생회도 알고 보면 정권의 탄압속에서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리와 정의를 배우고 이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런 청년학생의 특성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에게는 눈에 가시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으며 청년학생들의 올곧은 목소리를 막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생활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학생회를 탄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배님들의 투쟁은 학생회를 대중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정권의 탄압이 미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속에서 97년 김영삼 정부는 또 다시 학원자치조직인 학생회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학원 자치의 핵을 이루는 학생회에 대한 고민을 풀어보고 현재 김영삼 정부가 진행시키고 있는 학원자치권 탄압의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 경북대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지를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새내기 여러분의 궁금증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내용

☞ 학생자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회가 어떻게 만들어 졌나요?
☞ 학생자치권이 탄압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학생자치권 탄압의 본질을 무엇인가요?
☞ 김영삼 정권은 어떤식으로 우리의 자치권을 탄압하나요?
☞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끝마치며

현상을 넘어선 본질에 입각한 고민, 이는 대학생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현상속에서 매몰되었던 20년동안의 제도교육의 틀을 깨고 참된 고민으로 재정리합시다. 사실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을 줄 압니다. 하지만 아직도 길게 남아 있는 대학시절, 계속적인 고민으로 풀어봅시다.

세상속으로

조국통일을 위하여

-민족과 통일을 되돌아 본다

1. 들어가며

민족이라는 화두는 지난 두세기 동안 전세계를 뒤흔든 몇 개의 담론 중 하나입니다. 어떤 이는 나치즘이라는 광신적 인종주의로, 또는 베트남 전쟁과도 같은 민족 해방전선의 이념의 뿌리로 민족이라는 말은 자신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여 왔습니다. 이 만큼 민족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다양한 의미를 지닌 채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민족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민족 문제를 들먹이거나 민족주의의 여러 성격을 논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방 이후 50년은 전세계적으로 이념의 대립에 기초한 냉전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문제는 이념의 분화와 대립에 의해 색칠되어졌고 그것에 기반하여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냉전의 시대에는 민족 자체의 문제보다는 전세계적 범위에서 벌어지는 냉전적 대결이 보다 중시되어졌고 그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개별 민족의 문제보다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의 어느 한 진영의 전체의 이익이 보다 중요했었고 개별 민족의 이해는 여기에 종속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냉전의 해체는 이념의 대립보다는 개별 민족의 이익을 보다 중시하게 만드는 상황을 창출해 냈으며 따라서 개별 민족간의 분쟁발생 가능성이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족에 대해서 다시 고민함은 바로 이러한 세계적 조류에서 우리 민족의 오늘을 확인하고 또한 분단이라는 것이 이데올로기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외세의 간섭으로 인하여 영토가 분단되고 이를 이대올로기적 사상과 제도의 차이로 이질화를 유발하여 왔다고 했을때 민족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새기며 통일에 있어 민족의 자주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바로 우리가 민족의 구성원이며 민족의 운명을 떠나서는 나 자신의 운명또한 자유로운 것이 아님을 일제시대의 지배를 통해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하나의 민족, 하나의 조국

우리 민족은 동질성과 차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동질성은 혈연, 언어, 문화 등의 단일성과 남북경제가 합해져야만이 온전한 민족자립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경제 공동체, 오랜 역사동안 외적의 침입에 맞서 온 겨레가 함께 투쟁한 과정에서 쌓인 민족적 동지애등을 통해 아주 공고하게 다져왔습니다.
외세와 이에 동조하는 사대 세력은 이런 민족 동질성을 훼손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전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옛날 몽고족이 변발등을 강요했지만 우리 민족을 동화시키진 못하고 몽고족이 쫓겨났으며, 일제때 내선일체를 떠들고 창시개명을 하고 일본말을 쓰게 했지만 결론은 조선민족이 일본에 합병된게 아니라 일제가 패망하고 쫓겨난 것으로 귀착되었습니다.

아직도 조국이 분단된 속에서 여러 제국주의 나라들의 문화가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50년을 갈라져 있었지만 남북 탁구팀을 구성하였을때 그들의 눈빛과 가슴에 흐른 것은 민족만이 느낄수 있는 그것이 아니였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남북간 대립이 있는게 아니고 민족 내부에도 동질성이 강하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내부에 대립이 있다면 남:북의 대립이 아니고 민족:반민족의 대립일 것입니다. 이 극소수 사대 매판 세력은 차를 타도 미국 차를 타고 쌀을 먹어도 칼로스를 먹어야 품위라 생각하며 수천년간 지켜온 우리 농촌을 팔아먹고 몇만 남짓의 캘리포니아 농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북부 조국의 심장을 겨누기 위해 미국의 낡은 무기를 금값에 사들이는 자들이며 자신들의 아들, 딸이 양키가 지른 불에 나죽어가도, 양키의 희롱하는 손에 죽어가도 고개를 돌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반민족적 세력들의 대립을 마치 남과 북 민족의 대립인양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런 분열을 딛고 민족의 힘으로 통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민족간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족자체가 원래 북과 남으로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세에 의한 분단에서 50년의 수마가 남겨준 것입니다.

정치, 경제, 체제에서 차이가 있고 문화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봅시다. 이북의 80-90년대 영화를 보면 우리 나라의 60년대 영화와 말투와 표현이 아주 흡사합니다.
또한 신촌이나 압구정동을 나가보면 노란 머리에 파란 선글라그를 쓰고 아슬아슬한 옷을 입고 가는 젊은이들을 아주 흔하게 볼수있습다.
이 두가지를 두고 곰곰히 생각해 보면 과연 누가 누구에 의해 이질화 되었나 하는 고민을 들게 합니다. 이를 통해 민족의 차이의 성질은 민족 자체내에서 생긴 본직적인 것이 아니라 외래 제국주의가 강요한 인위적, 현상적 문제라는 것을 알수 있으며 우리는 민족의 실체를 올바로 보고 민족 동질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시간을 두고 차차 해소해 가는 식으로 통일 문제를 이해해 가다보면 이런한 차이는 쉽게 극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통일은 원래 하나이고 지금도 하나인 우리 민족이 제국주의가 강요하는 인위적인 분단장벽을 제거하고 온전하게 하나되자는 것이며, 이미 남북으로 갈라져 두 개의 민족으로 되어버렸는데 이것을 하나되게 하자는게 아닌거지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동질성과 차이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연방제 식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차이를 인정하여 두 개의 자치정부를 두면 되는 것입니다. 흡수통일이나 적화통일은 차이점을 인정치 않고 상대편을 싹쓸이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큼의 피해가 있는 것이며 극한 상황에서는 전쟁을 치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연합의 경우에는 동질성을 인정치 않고 차이점만 부각시켜 두 개 국가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민족의 한편만 일방적으로 강조하여 왜곡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의 동질성과 차이점을 인정하고 종합적으로 수용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으로 통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3. 통일운동의 방식

민족의 실체는 3위일체이며 7천만 겨레의 통일방식은 민족의 실체에 맞게 남북해외 3위일체 연방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통일운동 방식도 민족의 실체와 통일방식에 맞게 남북해외 3위일체, 민족대단결에 기초한 3자 연대 합작 방식이며, 한마디로 남북해외 7천만 겨레가 똘똘 뭉쳐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의 실체가 남북해외 3위일체 7천만 겨레이기 때문이며, 다음으로 통일운동의 성격이 남북해외 7천만 겨레가 주체되어, 남북해외 어느 한 지역에서만 벌이는 것이 아니고 모두를 아우르는 전국적 영역에서 통일적으로 벌이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통일운동을 대중적으로

벌이기 위해서도 민족대단결 방식으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반북 논리를 극복하고 민족간 신뢰와 애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평화군축 노력, 주한미군 철수 노력을 꾸준히 할 때도 반북논리를 극복하고 민족간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과 결합할 때 상당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축과 평화 협정에 대한 서명을 받으러 새내에 나갔다고 합시다. 시민들을 만나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군비 축소하며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학비를 대폭 절감해 준다고 하면 이를 마다할 시민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이북이 쳐들어오면 어쩌냐"는 반응을 본인다면 난감해 하는 경우가 생기겠지요?
걸핏하면 범죄나 일으키고 안하무인 격이며 퇴폐 문화를 퍼트리고 군사훈련 한답시고 불이나 내는 주한미군, 그들을 누가 반기고 존경하겠습니까마는 경제개발 사회복지를 조금 늦추더라도 북한 남침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사비를 투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미군에게 피해를 입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을 필요악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북이 정말 호시탐탐 남침할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지나치게 확대, '왜곡되고 굴절된 흑색선전이며 바로 이북을 전쟁의 상대로만 생각하는 남한 정부의 과대망상인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남과 북 민중간의 서로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없애고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된다면 아무리 남북한 내부의 평화군축이나, 주한미군 철수의 노력을 해도 결정적인 한계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호불신, 의혹을 없애고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었이겠습니까?
이것은 서로가 만나고 얘기하고 함께 공동으로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남북 민중간 불신과 의혹이라는 것이 어떤 현실적 근거를 가지고 생겨난 합리적인 인식이 아니고 대부분 거짓 선전에 의해 생겨난 허위 의식이고 이런 거짓 의식은 서로 만나고 얘기하고 함께 일을 해보면서 상대방을 느껴보면 금방 허물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중심으로 통제 차단하는 창구단일화를 반대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와 창구 다양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통일을 하기 위해선 남북간에 민족애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것은 민족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주려는 정신입니다. 옛날 국어책에서 읽었던 "볏단 나르기 정신"이라고 할까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실천으로 해야 서로 경쟁하고 반목 질시하지 않으며 통일도, 통일국가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

다.

4. 민족대단결의 원칙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조국의 통일문제에서 민족대단결의 우너칙을 견지한다는 것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각계 각층 민중들의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로 단결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조국의 통일이 전 민족적, 전 민중적 투쟁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누가 누구에게 이기는가, 지는가"하는 문제가 아니며, 조국통일 문제의 본질에 있어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민족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며 남과 북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통일은 모든 애국민중이 힘을 합치고 굳게 단결해야만 실현할 수 있고, 전 민족의 단결없이는 통일을 반대하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분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족대단결은 외세와 사대매국세력의 반통일 의도를 분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러한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민족을 전면에 내세워야 합니다.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공통된 하나의 이념을 내세우는 것은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애국 민중들을 하나로 단결시키기 위한 전제이며 민족의 이익에 우선하여 전 민족이 합의를 이루었을 때,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기 위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둘재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단결을 가로막고 있는 외세와 사대매국세력들을 몰아내어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민족대단결을 가로막고 끊임없이 민족 분열을 획책하는 외세와 분단 고착화에 자신의 명줄을 잡고 있는 사대매국세력의 존재는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이며 민족의 단결과 화해의 걸림돌인 것입니다.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에 의해서만 자유로운 통일 논의와 민족의 이질감을 제거하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으며 민족대단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애국과 매국, 외세와 자주를 가르는 민족 자주의 사상에 입각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속으로

4·9 통일열사

-자랑스런 복현의 상징 이재문, 여정남 선배님

혹시 대강당 앞 민주광장이라는 곳에 가본 일이 있는가? 가봤다면 그 위에 흐릿하게 남아있는 바닥그림을 본적이 있는지? 뜨거웠던 91년 백골단에 둘러싸여 쇠파이프에 맞아 죽었던 내 동기 경대를 시작으로 아까운 청춘을 불살랐던 수 많은 열사의 얼굴들이 그려져 있다. 나는 그 곳을 지날때면 그리고 그 그림을 볼 때면 철 모르던 새내기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직도 달라진 것 없는 이 조국의 현실에 가슴 아파하며 말이다. 그림에서 눈을 떼고 잠시 인문대 잔디밭 쪽을 보면 진달래 나무에 둘러싸여 덩그러니 남아있는 추모비 지리가 있다. 쌀쌀하던 겨울날 그 곳을 우연히 지나가는데 있던 비석이 없으니 어찌나 허전하던지. 지금은 영정도 앞에 놓고 꽃도 놓고 플랭카드에 시도 적어놓고 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맘 한구석이 빈 것같은 느낌은 지울 수가 없다.

이십이년전 그날 오후 2시 인혁당 재건 단체 관련자들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다. 그날 아침 구치소는 2심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차고있던 철사 하나로도 쉽게 풀수 있는 수정을 단단한 미제 수정으로 갈아끼웠다. 그리고 그날 오전 10시쯤, 구치소는 사형장을 청소했다. 청소하던 수인들은 다음날 누가 처형될 것인가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당시 아직 대법원 판결도 나지 않는 인혁당 관련자들이 처형당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75년 4월 9일 새벽 5시, 형 확정 15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이들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고 말았다. 군법회의법에 따르더라도 사형집행은 사형언도가 확정될 경우 국방부 장관은 6개월안에 사형집행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후 5일안에 집행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에겐 형확정 불과 몇시간 후에 사형 집행이 되었으니 이것은 명백히 정권에 의한 학살행위였다.

71년 10월 15일 박정희는 위수령을 내리고 72년 10월에는 전국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11월 27일엔 국민투표로 유신헌법을 탄생신켰다. 73년 8월 김대중씨

납치사건을 계기로 서울대 문리대가 공개시위의 포문을 열었고 11월 5일 경북대가 당국의 언론봉쇄를 뚫고 대규모 시위를 벌임으로서 유신철폐 학생시위는 전국대학으로 확대된다. 박정희는 긴급조치 1호로 이를 잠재우려 했으나 신학기가 되면서 학생들의 활동은 전례없이 활기를 띄어 한국신학대, 경북대, 서강대, 연세대등의 시위가 연쇄적으로 퍼져나갔다. 드디어는 4월 3일 '민중, 민주, 민족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른다. 이에 예의주시하고 있던 박정희 정권은 학생운동의 일련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3월 29일을 기하여 대량 검거에 들어갔다. 그리고, 며칠동안 집중적인 고문과 심문결과를 근거로 74년 4월3일 대통령 긴급조치 4호를 발표함으로서 민청학련 사건이 터지게되었다. 한달 이상의 고문수사 끝에 이 사건으로 관련된 총혐의자 1천24명중 2백 54명이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구속, 송치되어 1백 80명이 기소되었다. 기소된 180명 중에는 학생이 114명, 현직교수 2명, 일반인 17명, 정치인 10명, 변호사 1명외 교사, 교직원, 전직 공무원등이 포함되어있다. 74년 9월7일 비상고등 군법회의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관련 21명, 민청학련 사건관련 27명등에 대한 긴급조치 위반, 내란 선동등의 공판을 열고 사형8명, 무기징역 21명, 징역 12년 이상 20명 등을 선고하였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고문에 의해 조작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

인혁당 사건이 있은지 꼭 십년이 되는 1974년, 1964년 6.3한일 굴욕외교 반대시위 이후 가장 크고 격렬했던 시위인 이른바 '민청학련'사건이 일어났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서는 입증해줄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직 고문과 강제에 이해 작성된 피의자 조서와 검찰조서 뿐이었으며 잡혀온 사람중에서는 인혁당 재건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군사정권을 반대하고 민주화운동, 평화 통일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실패했던 '1차 인혁당 사건'의 보복적 성격이 강했다. 인혁당 재건위를 조작해낸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은 1차 인혁당 당시 검찰총장으로 있다가 후배 검사들에게 수모를 격었으며 이용택 중앙정보부 6국장은 당시에 5국의 대공과장으로 있으면서 악명을 떨치던 인물이었다. 이들 외에도 인혁당 재건위 조작사건을 맡은 대부분의 수사관들이 1차에서도 관여했던 인물로 추락한 명예를 되찾기라도 하려는 듯 악랄하게 굴었다는 것이다.

민청학련,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중 우리학교 선배님이 두 분 계시다. 이 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재문 선배님은

이재문 선배님은1934년 9월4일 경북 의성군 옥산면 전흥리에서 태어났다. 선배님은 편모슬하에서 어렵게 경북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 졸업하였다. 선배님은 졸업후 영남일보 견습기자로 입사하고 이어 대구일보 정치부 기자로 근무하면서 예리한 필봉으로 이승만 독재정권의 반민주, 반민족, 반도덕성을 폭로, 비판하였으며 4.19혁명 당시에는 민족양심의 대변지 역할을 하던 민족일보 정치부 기자로 활약하였다. 이러한 활동과 더불어 사회의 모순과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자유와 평등의 사회, 민족자주에 의한 통일조국 건설을 하는데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을 규합해 가는 과정에서 5.16군부에 의해 이른바 1차 인혁당 사건으로 검거된다.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배님은 1971년 박정희 군사정부에 반대하여 민주수호 국민협의회 경북지부 운영위원 및 대변인으로 활약하시다 2차 인혁당 사건이 발표되자 고난의 수배생활에 들어가게 된다. 피신생활중 8명의 동지들이 처형당하는 비애를 맛보셨다. 잡히기만 하면 즉각 처형당할 운명의 칼날 위에서도 극악한 제국주의의 신식민지 체제와 유신군사독재의 살인적 폭압성을 폭넓게 선정하여 박정희 군사독재체제를 국내외적으로 고립시키는 투쟁을 전개하셨다. 선배님은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검거, 80년 12월 대법원에서 사형언도를 받으셨고 몸이 극도로 쇠약한 상황에서도 80년 5월 광주학살에 격분하여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외부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선배님은 치료를 가로막아 연속되는 통증에 시달리다가 81년 10월 22일 서대문 구치소에서 옥사하셨다.

여정남 선배님은

유신독재정권의 제물이 되었던 2차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으로 희생된 많은 훌륭한 분들 중에서 유일한 경대생이셨던 여정남 선배님은 선도적 활동과 인품으로 항상 우리에게 아픔이자 아름다움으로 남아 있다. 여정남 선배님은 대학 재학중이던 1964-5년도 한·인 굴욕회담 반대시위에 열정적으로 참가해 제적되어 군에 입대하게 되며 69년 6월 중순 '정사회' 5기 회원들이 3선 개헌 반대 시위를 준비하여 선배님과 의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정남 선배님은 자신의 등록금을 사업자금으로 내놓아 결국 등록을 못하고 다시 제적 당한다. 그 후 70년도에 정사회가 해체되고 그 해 11월 경에 '정진회'를 발족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조력하며 주도적 역할을 한다. 71년 4월 9일 정진회에서 '전국 각 대학 써클 학술 토론회'를 주최하여 토론회가 끝난 후 〔반독재구국선언문〕을 작성하여 교내 배포를 했는데 이 유인물에 반외세라는 단어와 월남전에의 한국군 참전 반대라는 문구를 덜미로 반공법을 적용받아 재판중이던 8-9월 경에 보석으로 출감한

다. 72년 11월 14일 계성고와 부고에서 유인물 사건이 생기는데 이 때문에 임구호, 임규영 외 한명과 함께 4일간의 모진 고문을 겪게 되었고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문 흔적을 숨기기 위해 그들은 다방에서 유신헌법에 대해 토론한 것이 불법집회로 적용,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후 93년 11월 4일 유신반대 경대 시위가 언론에 가시화됨으로써 전국 각 대학 시위의 도화선이 되고 학내 운동을 주도했던 이강철, 정화영, 임규영, 황철식 등을 여정남 선배님은 학외에서 돕게 된다. 74년에 들어서면서 3월 25일 경 긴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경북대 시위를 시작하나 학생들의 위축으로 불발로 끝나고 관련자들이 수배를 받게 된다. 결국 주도적이던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고 여정남 선배님은 서울로 피신, 일어학원에 다니면서 이철, 유인태 등의 상담역을 하게 된다. 결국 이들의 선배로서 상담역을 하던 것이 민청학련의 배후조정의 죄명을 쓰고 유신독재 정권의 올가미에 걸려 1975년 4월 9일 새벽 6시, 아침이 오기 전에 살아서의 투쟁을 마감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이다.

89년 이후 매년 4월 9일이면 선배님들에 대한 추모행사를 거행해왔다. 이십이년전 일어난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 명예회복을 하는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다. 대대로 정권은 자신들의 실정에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국민들을 탄압하는 것으로 위기를 극복해 볼려고 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나 김영삼도 마찬가지이다. 조직 사건, 간첩단 사건은 선거때나 아니면 나라가 뒤숭숭할 때면 어김없이 터지는 단골메뉴가 되었다. 21세기가 다가온 지금도 이런 정권의 못된 버릇은 전혀 고쳐지지 않고있다. 온 나라에 민주주의의 청신한 물결이 넘쳐흐르는 세상이 온다면 이재문, 여정남 선배님의 명예회복은 자연스럽게 되지않을까 생각한다. 엄청난 물리력을 동원한 공권력으로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힘에의해 세워진 민주정부라면 이십이년전의 악몽이 지금 또 재현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은 안해도 되겠지. . .

알아두면 좋은 노래

■ 교가 ■

우리가 한 길 간다면
한사람의 열걸음을 열사람의 한걸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너와 내가 한맘으로
홀로이 가지 말아요 우리 모두 함께 가봐요
지쳐 쓰러져 있으면 내가 일으켜 줄께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성큼 크게 내딛어봐요
모두 하나가 되엇 한길 가자구요
한사람의 열걸음을 열사람의 한걸음으로
우리가 만들어봐요 끝내 한길을 간다면

■ 바위처럼 ■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에 손길에도 흔들림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뿌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니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해방세상 주춧돌이 될
바위처럼 살자꾸나

■ 시작의 노래 ■

시작의 노래를 부르자 힘겨운 삶일 지라도
세상이 거꾸로 간다고 등 돌릴 순 없어
서로가 얼굴 붉히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찾는 사랑은 어디에
서로가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찾는 세상은 없어
나에게 소중한 건 지금 마주 앉은 사람과
따뜻한 눈길로 믿음을 나누는 것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돌아앉은 사람과
작지만 소중한 세상을 만드는 것
시작의 눈빛으로 한판 시작의 노래로
마른 땅을 딛고 뛰는 거야
바로 지금 이곳에서

■ 바로 그 한사람이 ■

이 세상 어디에나 태양이 비추듯이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길을 걷다 채이는 돌맹이라 하여도
그것없인 어떤 집도 지을 수 없다는 걸
너무 빨리 혼자서 앞서 가지 마세요
그렇게 혼자 가면 당신도 외로울 거예요
저 뒤에 앉아서 한숨 돌리는 사람
바로 그 한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죠
잊어서는 정말 안 되요 소중한 사람들을

■ 넘어져라 부딪쳐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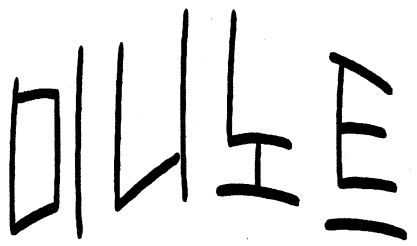
넘어진다고 괴로워마라 부딪친다고 괴로워마라
넘어지고 부딪치는게 좌절의 끝은 아니지.
더 단단한 내가 되는 시작일 뿐이지
쉽사리 깨어지는 그런 돌들보다 더이상 깨어지지 않는 차돌
그렇게 살아야지. 고통은 삶의 다듬이질 넘어져라 부칮쳐라
다시 한번 힘차게 다시 한번 힘차게

■ 전여대협진군가 ■

민족사적 전환기를 개척하는 전/여/대/협

일어서라 해방의 전사여
내 조국의 부름이다
전여대협 깃발을 높이 올려라
아아 진군이다
|자랑스런 조국의 딸 그대
항일 여성 전사의 후예여
반미반독재의 성전에서
선봉에 우뚝 서리라
당당한 세상의 절반으로
조국의 역사를 개척하리라
전여대협 깃발을 높이 올려라
자주 민주 통일의 세상을 열자 :||

메모


메니노트

메니노트


대동
학교